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만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대불교신문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삼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본봉: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01호
서기 2001년 1월 1일 월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마음 주장자만이 재난 막을 수 있어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면서 차원들이 얼마만큼 인지를 알기 위해서도 그렇고, 서로 연결이 돼서 무의 법으로 통신이 되는 것도 알아볼 겸해서 오늘은 그냥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스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산은 산이되 돌이 아닌 고로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되 돌이 아닌 고로 또한 돌이 없어 내 가 산이고 산이 돌이고 나와 돌이 아닌 고로 앞으로 미래에 닥칠 지구상의 모든 문제도 곧 내 문제로 절실하게 다가와 감로법을 청하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분명히 우주 삼계가 하나로 통하는 자리이고 일체제불과 상천, 중천, 하천세계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항상 육신에 집착하고 삼독심에 물이 들어 상대와 나를 돌로 보고 나라고 고집하며 살다보니 오늘날 이 지구상에 닥친 문제들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지난번에 독일 다녀오신 이후 열일공간의 비행, 그 노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간곡하게 마음의 도리로써 나를 조절하고 나라를 조절하고 세계와 우주를 조절하는 도리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말씀 가운데에 뜨거운 아픔과 눈물을 감지하지 못하고 듣는 그 순간뿐,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결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의 제자로서 내가 없는 도리를 알았고 내가 없는 도리를 알고 보니 미약합니다. 마는 여기 없으신 모든 분들이 다 나왔습니다. 지수화풍 만물만생이 다 나와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있어 제신분들을 대신하여 돌아온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청하면서, 과연 우리 마음의 능력으로 미래에 지구에 닥칠 재난을 정말로 막아낼 수 있다면 그 도리를 다시 한번 설행하시길 청하옵니다.

마음공부 왜 해야 하나

스님: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 길에 예언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 중에는 마음에 달렸다고도 했습니다. 마음의 주장자만이 모든 재난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신통을 알아도 도가 아니라 한 거와 같이 알지 않아서 말을 했으나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와 더불어 지구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그렇고 줄이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두 불, 물, 종교로 인해서 일들이 많이 벌어진 사연들을 볼 때 지금은 더군다나 깨이고 물질세계로 치달기 때문에 정신세계는 미약해지는데 누가 그것을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본래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돌이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서 이렇게 움직여간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소인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은, 내 앞에 칼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칼에 물을 담아서 내가 먹고 남에게 줄 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서 만약에 유와 무를 돌이켜 수행하는 자, 무의 과학자, 무의 실천자들이 이러한 문제로 공부를 한다면, 자기 주장자의 자유자재권을 얻었을 때 비로소 세계를 건질 수가 있고 지구의 수명을 끝없이 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나를 끌고 가는 나가 없다면 몸은 송장이 될 것이고 또 내 육신이 없다면 보이지 않으니 무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는 나가 있고 또 나가서는 가정을 이끌어가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가고, 우주 삼계 천세계를 이끌어 가는 근본이 바로 마음이 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주와 직결이 돼있고 세상 만물과도 가설이 돼있다고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흘러 버리겠지만 흘러버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진리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게 될 줄 알아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원자는 가만히 힘을 배출해 주는 반면에 입자는 초 '보살들' 하는 소립니다. 입자는 천차만별의 이름으로 소임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데의 50%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 몸을 형성시킨 장본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또 돼소를 심는데 종자가 없다면 물질이 나오지 않는데 그 물질이 나와서 다 먹이고도 또 종자를 이루어서 먹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가만히 볼 때에 우주 삼계 천세계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는 반면에 항상 내가 정, 내 몸뿐만이 아니라 조상, 자녀들, 사회, 전체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는 문제는, 바로 모든 것을 다 귀결해서 통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쥐고 가만 해도, 쥐고 가면서 생활을 해나가고 또는 살아나가면서 거기다 맡겨서 즉발로 우주법계에 통신이 되면, 우주법계에서 우리 중(사)세계의 살아나가는 것을 상세히 알게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는 것을 아세요.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거나 '또 그냥 해보는 소리겠지' 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질문: 신도님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그렇게 큰 문제가 닥친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또 마음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잘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인간은 죽고 살고 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집착할 게 뭐 있는가' 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에 참석한 신도님들 역시도 제가 만난 신도님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을 예로 들어 다시 한번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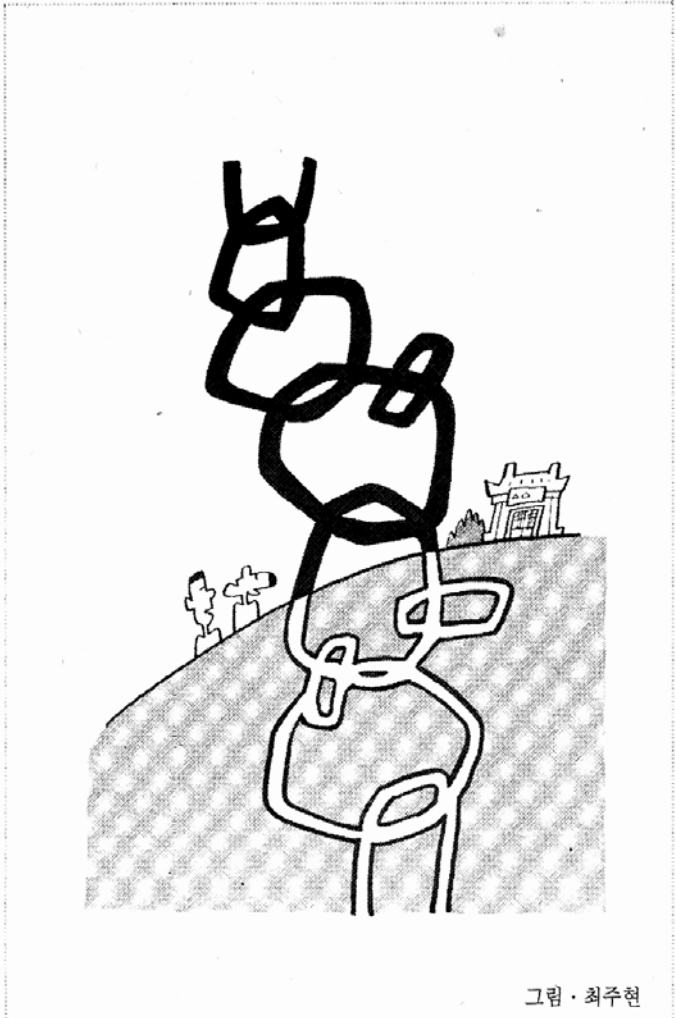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예언은 보기만 하고 해결 못해 소인

정신 - 물질 둘 아닌줄 알면 피안 건너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언자가 너무나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조선 명종 시대의 '남사고' 라는 사람이 쓴 '격암유록' 이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예언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이라고 그림니다. 그 사람은 조선 명종 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깝게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조선말기로 넘어와서는 한일합방, 8.15 해방, 또 남북분단, 심지어 군사정권의 출현까지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남사고의 대재앙 예언

제가 그걸 읽다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스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예언서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닥치니까 대비하라는 뜻에서 쓰여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비하라는 뜻에서 받아들이

기보다 예언적인 뜻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왜하면 그 책을 편집하는 사람의 의식이 이와 같은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길은 마음에 있다' 라고 분명히 적어져 있는데도 어떻게 마음을 굴리고 어떻게 작용을 시켜야 그와 같은 일을 막아내는 지를 모르기 때문에 적어놓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하면 그 남사고의 격암유록 끝 부분에 '이와 같은 일이 닥치고 한반도도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 라고 나오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한반도의 동남쪽 백리가 물에 잠기고 스님께서 발행된 법회 때 말씀하셨던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작용으로 인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 내부의 열이 계속 높아지면서 얼음을 급속하게 빨리 녹인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동남쪽, 그러니까 제가 있는 포항도 해당되고 부산지역이 나 마산지역 다 해당됩니다. 놀랍게도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 물에 잠긴다' 라고 나왔습니다. 또한 '예블라' 라고 할 수 있는 괴질이 한반도에서 속출하여서

열 가구 중에 한 가구도 살아남기가 어렵고 아침에 났던 사람이 저녁에 죽어있고 모든 시체가 땅이란 땅은 다 덮어서 산 사람 보기가 극히 어렵게 되는 시절이 온다고 예언이 돼있었습니다.

그 예언서의 두께가 상당한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놀랍게도 열 줄도 안되어 적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나와있어요. 마음에 달려있는데 어떤 마음에 달려있나, 해인을 얻어야 된다' 고 했습니다.

'하늘 세계에서, 상천세계에서 아래 중(사)세계를 내려다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해인을 얻는데 무관심하다는 걸 통탄하고 계

다무스도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정도밖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구의 아픈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성격을 갖는 책을 쓸 수가 있는지 마음 공부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심지어는 소 울음 소리나는 곳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모 종교에서는 소 울음소리가 한자로 출자됩니다. 흠! 그래서 흠이려는 주문을 계속 외우면 그 주문으로 인하여 음기와 양기가, 수기와 화기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라고 나와 있나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헤르메스의 지팡이, 해인을 얻는 사람은 한국에서 나온다 고 돼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스님께서 저희들께 항상 마음을 발견하고 돌이킨 도리를 알아서 서로서로 통신하여 들고나면서 작용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 고 말씀하시는 게 스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법계의 심부름이구나, 일체제불 전에서 설

유와 무 둘 아니게 수행하는 자가 주장자의 자유자재권 얻었을 때 세계를 건지고 지구 구할 수 있어요

신다' 라고 적어져 있어요. 해인을 얻는데 무관심하고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인 삼매에 드는 사람은, 해인을 얻은 사람은 모든 재난을 전부 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주어진다 고 적어져 있어요.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해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 나온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서 해인삼매에 들면 그야말로 얼음이 녹아서 대용수가 벌어지고 괴질이 출현하고 지진이 일어나도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라고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편집한 저자가 정확한 이들을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 국문과 출신인데 그 사람이 해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런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해인에 대해서 어떻게 적어져 있느냐 하면 '그러면 해인이란 무엇인가. 해인 하면 생각나는 게 해인사가 있다. 성철스님이 열반하신 곳이다. 그래서 뜻사람들은 해인사에 해인이 숨겨졌다고도 한다. 그러나 아마 그 해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그렇게 많은 페이지에 수많은 예언들을 적어놓고 검은 잔뜩 쥐놓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도대체가 앞 뒤 꼭 막힌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하면 그 남사고의 격암유록 끝 부분에 '이와 같은 일이 닥치고 한반도도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 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편지를 보내고 싶었어요. 스님 밑으로 올라고요. 정말 그때 제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또 한 가지를 덧붙였느냐 하면, 이 격암유록에 '해인' 이라고 하는 말은 노스트라다무스의 '헤르메스의 지팡이'와 일맥상통하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지구인들은 노스트라다무스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999년이면 지구가 멸망한다 그랬고 그 멸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헤르메스의 지팡이' 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헤르메스의 뜻이 뭐냐면 '조화의 지팡이' 랍니다. 노스트라

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이미 지구에 닥칠 이러한 재난들을 말씀하시고 마음에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열심히 마음공부를 하라고 일러 놓으셨건만 부끄럽습니다만 저희들조차 그걸 그렇게 심각한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주어진 일이 공부 교재

그러나 스님의 그 간절한 이끄심으로 저희들이 마음의 눈을 뜨고 돌이킨 도리를 하나하나 알아갈 때 정말 절실한 우리들의 문제로 다가왔고 허무맹랑 모두 다 알아야 될 문제이고, 아주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님: 신도들이 이양 죽을 거라면 그냥 살다가 죽지, 그러려면 말이지? 하하하하...

됐다. 다 도인들이 됐구나... (대중웃음) 그런데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죽으려면 농사도 짓지 말고 사회가 뭐 필요 있겠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농사를 짓게 되면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먹일 수 있고, 끊임없이 대대로 먹어야 되거든. 그렇게 농사를 짓고 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지극하게 해나가고, 그 해나가는 자체가 바로 교재라고 말할 해줘도 그냥 살다가 죽는다고 말할 하더라도 말이?

질문: 그 문제가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를 들었죠. 만약에 법회를 하는데 법당에 불이 난다면 어차피 한번 죽고 한번 사는 데 그냥 앉아 계시죠. 그랬더니 아무도 그렇게는 안 한대요. 눈앞에 닥치질 않았기 때문에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스님: 그런데 마음공부를 하면서 능력이 주어진 사람은 앉아 있었지만 능력이 주어지지 못한 사람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방방거리게 돼있지. 지금 곧 하늘이 무너져

20면으로 계속

가빠른 안목을 보듯 고갈된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디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어시구문